

# 제주의 옛 지도, 탐라지도병서(耽羅地圖并序)



〈사진 1〉 탐라지도병서



〈사진 2〉 탐라지도병서 중 지도부분

조선 후기에 들어 사회경제 발달에 따라 전국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18세기 초 실학자인 정상기(1678~1752)는 과학적인 축척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대규모 전도인 [동국지도(東國地圖)]를 만들고 이 지도를 바탕으로 각 도별 지도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지도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 지도가 만들어져 지리 정보가 축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시기에는 대규모의 도별 지도는 물론 자세한 군현지도도 등장하였으며, 제주도에 대한 지리정보도 자세하게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1702년(숙종 28) 제주목사 이형상이 재임시 제주목의 화공 김남길로 하여금 그리게 한 {탐라순력도}는 본격적인 제주 지도의 시초가 되었다. 제주도 순력 장면을 총 40개의 지도로 그렸는데, 그 바탕이 되는 것이 {탐라순력도} 속의 [한라장축(漢拏狀圖)]이다. 도면에 24방위를 설정하고 제주도와 인근 섬 등을 그렸는데 실제 제주의 지형과 매우 유사하게 자세히 묘사하였다. 또한, 주변지역은 방위와 거리수를 표기하였다. 이러한 도법은 18세기에 통용되기 시작한 도법인데 더구나 이 지도는 제작연대가 뚜렷하여 매우 귀중하다.

{탐라순력도}가 제작된 지 7년 후 새로운 제주전도가 등장하였다. 1709년(숙종 35) 제주목사 이규성이 제작한 [탐라지도병서]로, 세로 125cm, 가로 98cm의 현존하는 제주전도 중에서 상당히 큰 대형 지도이다.

윗부분과 아래 부분에 지지(地誌)적인 기록이 수록되어 있고 중간에 지도가 그려져 있다. 이 지도는 3장의 목판을 위 아래로 이어서 만든 것으로, 한반도의 육지 부분도 실제 거리와 관계없이 지도의 상단에 배치시켰고 그 사이에 있는 섬들도 상세하게 그려 넣었다. 수록된 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자세한 것이 큰 특징이다. 제주뿐만 아니라 서울 조정에서도 보관되어 이후 제주지도를 제작하는 데 기초 지도로 활용되었다. 더구나 이 지도는 목판본으로 제작되어 대량 복제가 가능하였으므로 제주도를 널리 알리는데 큰 공헌을 하였을 것이며, 훗날 대규모의 제주 전도를 제작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도의 방위는 육지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렸기 때문에 남쪽이 지도의 상단에 위치한다. 바다에는 전통적인 파도무늬를 그려 넣었고, 사방으로는 간지(干支)에 의한 24방위를 표기하였다. 상단과 하단에는 각 고을의 연혁, 도리(道里), 인구, 군사, 재정 등과 관련된 기록과 명승고적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제주도는 동서로 140여 리, 남북으로 70여 리이며, 전답은 9,600결이고, 목장은 13개소, 과수원은 40곳, 봉수는 25곳, 연대는 38곳, 방호소는 9곳이라고 한다. 또 마을은 150곳이며 8,955호에 33,585명이 살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읍성을 특별히 확대하여 그리지 않고 주변 지역과 동일한 축척으로 그렸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오름들과 임수(林藪)의 모습이 음각으로 자세히 그려져 있고, 촌락과 포구들은 양각으로 표기되어 있다. 하천은 쌍선으로 그려져 있고, 단선으로 그려진 것은 목장의 경계이다. 특히, 목장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는데, 10소장을 비롯하여 산마장, 모동장(毛洞場), 천미장(川尾場), 장장(獐場), 북쪽 해안의 좌가장(左可場)과 서산장(西山場)까지 상세히 그려져 있다. 목장의 경계가 되는 돌담(잣성)과 함께 목장을 출입하는 문(門)의 명칭까지 상세하게 표기되어 있다. 각지에 분포하는 용천수는 생수(生水)라고 표시되어 있다. 봉수는 오름의 정상에 불꽃 모양의 기호로 표현했고, 군사 기지인 방호소의 모습은 원으로 강조되어 있다. 도내 전역에 분포해 있던 과원은 원 안에 [과(果)]라고 음각하였다. 외국의 지명도 표기하였는데 특별히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 방향에 위치시켰다. 대부분의 지명의 방향이 비교적 정확하게 그려져 있다.

이 같은 지도 자료가 집대성되는 조선시대 말기에는 동여도, 청구도, 대동여지도와 같은 초대형 전국지도가 완성된다. 전국지도에서 제주도는 정확한 위치와 지형, 해상교통로, 읍치와 군현 등이 표기되어 우리의 중요한 영토로 인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신명희** 국립박물관 학예연구사